

# 우리나라 製造業의 市場構造\*

李 奎 億  
李 在 亨  
金 周 勳

▷ 目 次 ◁

- I. 序 言
- II. 製造業部門의 産業構造變化
- III. 集中指數의 類型과 性格
- IV. 製造業部門의 集中推移
- V. 商品市場構造의 變化
- VI. 製造業部門 産業構造의 特性
- VII. 結 言

## I. 序 言

우리나라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실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市場經濟體制를

筆者：李奎億—韓國開發研究院 前任研究委員，李在亨—韓國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金周勳—韓國開發研究院 研究員.

\* 本稿는 近刊豫定인 研究報告書『우리나라 製造業의 産業組織分析』의 내용 중 重要 部分을 요약한 것임.

著者들은 本稿의 작성에 必要한 基礎統計의 提供과 電算處理에 協力하여 주신 經濟企劃院 統計局 産業統計課·資料管理課·資料處理課의 全職員 및 本院의 金啓朝 主任研究員, 金時中 研究員, 그리고 本稿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해주신 本院의 金裁元 研究委員과 朴俊卿 副研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임.

지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經濟政策基調는 1981年 4月부터 시행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 法律은 종래와 같은 政府의 직접적인 市場介入이 최대한 배제된 가운데 市場機能의 원활한 작용을 통하여 經濟가 발전될 수 있도록 競爭的인 市場構造를 조성하고 公正한 市場行態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市場의 構造는 市場行動 및 成果와 더불어 市場의 性格을 규정하는 三脚의 하나이지만 市場行動과 成果는 결과적으로 市場構造에 영향을 줌에 비하여 市場構造는 經濟主體의 動機가 변하지 않는다면 市場行動과 成果에 獨立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市場經濟體制를 進化시키고자 한다면 市場構造의 推移와 特性을 파악하는 것이 重要하며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는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의 市場構造를 분석하고자 한다.

著者(1977, 1981)는 이미 1970年, 1974年, 1977年 統計의 分析을 통하여 과거의 市場構造의 양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本稿에서는 1981

年度『鑛工業 統計調查報告書』의 母資料를 이용하여 이상의 연구와 맥락을 잇고자 한다. 특히 市場構造의 推移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1977年과 1981年의 兩年度를 比較時點으로 선택하였는데 이 期間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國內産業構造의 調整·輸出構造의 變化·安定成長基調의 定着·市場機能의 活性化 등을 위한 政策的 努力이 시작된 중요한 時期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本稿를 통하여 이러한 여건의 變化가 市場構造에 미친 直·間接의 影響을 제시함으로써 금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製造業部門에 관한 産業組織論的 연구와 産業政策 및 競爭促進政策의 方向設定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製造業部門의 産業構造變化

1977~81年의 4年間 우리나라의 製造業部門은 事業體數와 雇傭面에서 각각 1.25배와 1.06배 증대하였으며 出荷 및 附加價値는 不變價格으로 각각 1.37배와 1.45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成長의 내용을 産業別로 보면(附表 1), 飮食料品 및 담배, 纖維·衣服 및 가죽, 나무 및 나무製品 등 開發初期에 우리經濟를 주도하였던 輕工業部門의 出荷額 증가는 둔화한 반면, 化學·石油·石炭· 고무·플라스틱, 非金屬鑛物製品, 第1次金屬, 組立金屬·機械 및 裝備 등 重化學工業의 성장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同期間中 國內産業의 構造調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事業體數와 雇傭面의 變化를 보면 일층 명백해진다. 즉 輕工業分野

〈表 1〉 製造業部門 規模의 推移

(단위: 億, 千名, 1977不變 10億원)

	事業體數	雇傭	出荷	附加價値
1977 (A)	26,726	1,919	15,207	5,597
1978 (B)	33,431	2,044	20,890	8,135
(B)/(A)	1.25	1.06	1.37	1.45

〈表 2〉 事業體規模別 製造業 構成比

(단위: %)

事業體規模 (從業員)	事業體數		從業員		出荷		附加價値	
	1977	1981	1977	1981	1977	1981	1977	1981
5~49	78.0	80.2	16.1	17.4	8.3	8.6	9.0	9.8
50~99	9.0	9.1	8.9	10.5	6.3	7.0	6.8	7.5
100~299	8.9	7.6	21.0	21.3	15.9	16.8	16.6	17.5
300 이상	4.1	3.1	54.0	48.9	69.5	67.7	67.6	65.2

의 事業體數 增加는 年平均 2% 내외임에 반하여 重化學工業分野에서는 10%선에 이르고 있으며, 從業員數도 輕工業分野에서는 감소하였지만 重化學工業分野에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 期間中 製造業部門의 實質附加價値 增加率은 年平均 9.8%로 같은 期間의 GNP成長率 4.3%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製造業部門이 우리 經濟成長의 原動力이 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實質附加價値의 成長率도 역시 重化學工業分野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纖維·衣服 및 가죽産業이 外形的으로는 成長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實質附加價値 增加率은 年平均 12%로서 製造業平均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産業의 生産樣式이 變化하여 高附加價値産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表 2〉에서 事業體規模別 推移를 보면 1981年의 경우 1977년에 비하여 300人 이상을 고용하는 大規模事業體의 相對的 比重이 모든 면에

서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數的으로는 전체의 3.1%에 불과한 소수의 事業體가 從業員의 48.9%, 出荷 및 雇傭의 67.7%와 65.2%를 차지하고 있어 고도의 集中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事業體當 및 從業員當 出荷와 附加價値의 成長率은 大規模業體가 製造業平均을 능가하므로 오히려 事業體間規模의 隔差는 더욱 확대되었다. 예로서 大規模事業體의 事業體當 出荷와 附加價値는 각각 3.1배와 2.8배가 증가하였으나 製造業平均增加는 2.3배와 2.2배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製造業部門은 1977~81年間 産業構造 및 業體間規模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당연히 各産業의 市場構造에는 현저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하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내용을 조사하기로 하며, 우선 분석에 필요한 指數에 관하여 논의한다.

### Ⅲ. 集中指數의 類型과 性格

#### 1. 構造指數의 類型

市場構造를 측정하는 指數는 成果指數와 構造指數로 나누어진다<sup>1)</sup>. 成果指數는 價格, 利潤 등과 같은 市場成果를 기준으로 集中度를 나타내려는 것으로서 이는 本稿의 취지상 分析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構造指數는 計算範圍에 따라 다시 少數 大企業의 市場支配力을 측정하는 絕對的 指數와 全體 企業間 市場支配

力의 不均等 程度를 측정하는 相對的 指數로 구분할 수 있다. 構造指數는 個別 企業의 市場占有率( $S_i$ )과 市場內 企業體數 (全體 企業이면  $n$ , 一部 上位企業이면  $k$ )의 두 가지 變數로서만 계산되는데, 대표적인 것만을 요약하면 <表 3>과 같다.

$CR_k$ 는 한 市場에서 上位  $k$ 企業이 차지하는 規模의 비중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直感的인 이해와 계산상의 簡便性에 利點이 있지만 上位  $k$ 企業間의 相對的 規模隔差와 市場內 全體 企業間의 不均等度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H$ 는  $S_i$ 의 제곱의 합이므로 市場占有率 이 클수록 指數值에 크게 반영되며, 따라서  $H$ 의 값이 클수록 上位企業에 의한 集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 는 企業間 規模가 비슷할수록 競爭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物理學의 Boltzman 法則을 援用한 것으로서 指數值가 클수록 獨占度가 낮은 것을 뜻한다. 그런데  $E$ 는 各企業占有率과 企業體數의 변화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지 않으며 指數值가 1을 넘는 경우가 많아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  $RE$ 는  $E$ 의 論理的 屬性을 유지하면서 指數值가 다른 指

<表 3> 構造指數의 類型

指 數 名	定 義 式
上位 $k$ 企業 集中率	$CR_k = \sum_{i=1}^k (S_i \times 100)\%, k \leq n$
Herfindahl 指數	$H = \sum_{i=1}^n S_i^2$
Entropy 指數	$E = - \sum_{i=1}^n S_i \log_2 S_i$
相對的 Entropy 指數	$RE = \frac{E}{\log_2 n}$
Gini 指數	$G = \frac{\frac{1}{2}(n+1) - \sum_{i=1}^n S_i \cdot i}{\frac{1}{2}n}$
Horvath 指數	$CC = S_1 + \sum_{i=2}^n S_i^2 [1 + (1 - S_i)]$

1)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李奎億(1977, 1981)을 참조.

數와 마찬가지로 1과 0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한 것인데 역시 指數와 集中度는 逆關係에 있다.  $G$ 는 相對的 不均等度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동등한 규모의 企業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와 극소수 존재하는 경우가 指數上으로는 같게 되는 결함을 갖고 있다.

## 2. 指數間 相關關係

産業의 規模를 측정하는 變數에는 出荷額, 雇傭, 資産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本稿에서는 市場構造의 變化를 分析의 主對象으로 하므로 이 중에서 市場의 외형적인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出荷額을 規模變數로 채택한다. 이와 같이 規模變數가 선정되어도 構造指數는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다양하므로 실제 統計分析을 함에 있어서 指數의 선정문제가 대두된다.

각 指數는 理論的 屬性을 달리 하지만 실제 統計에 적용하는 경우 相關關係가 높은 것이 많다. 이러한 指數間的 相關關係가 충분히 높다면 分析의 目的이 여러 指數를 사용하여 보다 나은 計測值를 구하려는 데에 있지 않은

이상, 여러 指數 중 비교적 계산이 간편하고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指數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因子分析(factor analysis)을 시도한다. 이 技法의 要諦는 指數間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因子를 추출하여 각 指數의 個別因子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다<sup>2)</sup>.

전체 製造業에 걸쳐 얻어진 指數들로부터 추출해 낸 因子들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각 指數의 屬性에 일치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因子分析技法을 적용한 결과는 <表 4>와 같다. 이 表에서 絕對的 占有率과 企業體數에 의해 구성되는  $CR_3, H, E, CC$  등이 因子 1 (絕對的 占有率 및 企業體數)에 대하여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G$ 는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꾸로 相對的 不均等度인 因子 2에 대해서는  $G$ 가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CR_3, H$  등은 낮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1981년의 統計를 대상으로 할 때 指數는  $CR_3, H, E, CC$ 와  $G$ 의 兩六群으로 개별할 수 있는데 이는 指數間的 序列相關關係와 單純相關關係를 정리한 <表 5>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sup>3)</sup>. 즉  $CR_3, H, E$  및  $CC$ 는 상호간에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으나  $G$ 는 이들 指數와 낮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市場構造分析을 위하여는 이상의 두 가지 指數群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인데 本稿의 목적이 企業間 不均等도보다는 上位企業의 市場支配狀態를 직접 다루는 것이므로 第1群 指數가 적당하며,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直感的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CR_3$ 를 對象指數로 한다.

<表 4> 集中指數와 因子 간의 反應係數(1981)

	因 子 1	因 子 2
$CR_3$	0.93318	-0.04205
$H$	0.97092	-0.03198
$E$	-0.93826	0.14218
$RE$	-0.78337	-0.46664
$CC$	0.98822	0.00423
$G$	-0.21390	0.77625

2) 因子分析에 관하여는 Harman (1960)과 Horst (1965) 참조.

3)  $CR_3$ 와  $E$ 의 理論的 構成上의 차이로 볼 때 이 결과는 統計의 특성 때문일 것임.

〈表 5〉 集中指數間 單純相關係數(1981)

	H	E	RE	CC	G
CR <sub>s</sub>	0.83962	-0.95930	-0.63809	0.91202	-0.00326
	0.97981	-0.97441	-0.62695	0.96913	-0.05149
H		-0.86139	-0.81422	0.97354	-0.01005
		-0.96725	-0.68026	0.99531	0.00050
E			0.62880	-0.90841	0.01471
			0.56137	-0.94888	0.13468
RE				-0.78445	-0.01888
				-0.68976	-0.59850
CC					0.00141
					0.01437

註: 각 指數別 係數 중 上位數는 Pearson 單純相關係數, 下位數는 Spearman 序列相關係數임.

### 3. 製造業部門의 企業規模分布

絶對的 占有指數系列은 市場集中의 정도를 나타내어 주기는 하지만, 그 市場內 企業들의 分布狀態를 한 눈에 보여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企業의 規模가 統計學的 分布(statistical

distribution)를 따른다면 그 分布의 母數(parameter)만으로도 企業의 分布狀態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統計學的 分布는 製造業 全體와 特定 產業의 構造分析에 매우 有用한 道具가 될 수 있다<sup>4)</sup>. 아래에서는 實제의 企業分布에 近似하는 統計學的 分布로서 흔히 利用되는 代數正規分布(log-normal distribution)가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企業規模 分布의 對상을 中·小分類 또는 그 이하의 產業으로 택할 경우 현실적으로 企業體의 標本數가 적어져 正規分布를 따르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製造業 전체를 그 대상으로 택하였다.

〈表 6〉 製造業部門의 企業規模分布(1981)

雇傭規模	企業體數	構 成 比 (%)	
		實 際 值	理 論 的 期 待 值
500~	597	1.7858	1.7860
300~499	450	1.3461	1.6905
200~299	725	2.1686	2.1155
100~199	1,832	5.4800	5.8667
50~99	3,032	9.0694	9.2953
20~49	6,065	18.1418	17.2645
10~19	8,675	25.9490	15.1695
5~9	12,055	36.0593	46.8120
計	33,431	100.0000	100.0000

註: 위 글의 企業體數 分布를 代數正規分布로 假定할 때  $\mu$ 와  $\sigma^2$ 는 각각 11.56명과 0.61임.

1981年의 從業員 規模別 資料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의 企業分布를 8個 區間으로 나누어 〈表 6〉에 수록하였다. 여기에서 實際値는 각 區間別 實際雇傭比率를 나타낸 것이고, 理論的 期待値는 代數正規分布를 따른다고 假定하였을 때의 理論値이다. 實際値가 理論値에 近似하는가를 檢證하기 위하여  $\chi^2$ 값을 구하면 3,427.1이 되어 自由度 5인  $\chi^2$ 分布

4) 이를 利用하여 市場構造를 나타내는 데 수반되는 長短點에 관하여는 예컨대 Aaronovitch and Sawyer (1975), Prais (1976) 등을 참조.

의 99% 信賴限界인 15.0836보다 대단히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의 전체 企業分布는 代數正規分布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中分類産業 수준에서 企業體數가 많은 産業을 선택하여 代數正規分布 여부를 檢證할 수도 있지만, 企業의 代數正規分布가 갖는 經濟學的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더 이상의 分析은 생략한다.

## Ⅳ. 製造業部門의 集中推移

### 1. 一般集中率

一般集中率(overall concentration ratio)은 産業分類에 관계없이 全體 製造業에서 소수의 上位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려는 것으로서, 出荷基準과 雇傭基準으로 1977年과 1981年을 대비하면 <表 7>과 같다.

<表 7> 一般集中率의 趨勢

	(단위 : %)			
	出荷基準		雇傭基準	
	50大	100大	50大	100大
1977	35.0	44.9	16.9	23.9
1981	36.6	45.9	16.5	22.8

이 表에서 보면 小數 大企業에 의한 集中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出荷面에서는 一般集中率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50大 企業을 기준으로 할 때 1977년에는 全製造

業體數의 0.19%가 總出荷의 35.0%, 1981년에는 全製造業體의 0.15%가 總出荷의 36.6%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規模의 經濟性, 多工場企業의 증가, 産業別 成長速度의 차이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여하간 이는 經濟力集中化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로 인식된다.

또한 雇傭面보다는 出荷面에 있어서 一般集中率이 훨씬 높으므로 上位 大企業들이 生産規模의 經濟성과 市場力에 있어서 여타 企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附表 2>에서 100大 出荷企業의 産業分布를 보면 産業用化學物, 纖維·食料品·第1次 鐵鋼, 運輸裝備産業에 편중되어 있고, 100大 雇傭企業은 纖維·電氣機械·運輸裝備·衣服· 고무製品·食料品에 편중되어 있다. 100大 企業中 纖維 및 衣服産業의 大企業은 出荷基準으로는 19개, 雇傭基準으로는 32개로서 이 産業은 아직도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産業用化學物, 石油精製, 第1次 鐵鋼産業의 大企業은 出荷基準으로는 31개인 반면, 雇傭基準으로는 7개에 불과하여 이들 産業이 전형적인 裝置産業으로서 資本支配的(capital-dominant)인 동시에 資本集約的(capital-intensive)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纖維·衣服·電氣機械는 勞動支配의 내지 勞動集約的 産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 2. 産業集中率

産業集中率(industrial concentration ratio)은 한 産業內의 集中狀態를 측정하는 것으로 本稿에서는 331개 細細分類産業別 上位 3社의

5) 要素集約度와 要素支配度의 概念에 관하여는 Gold (1981) 참조.

出荷集中率( $CR_3$ )을 대상으로 한다<sup>6)</sup>. <表 8>에서 1981년의 集中率分布를 보면  $CR_3 \geq 60\%$ 인 高集中産業이 176개로 전체 製造業內 細細分類産業數의 52.9%를 차지하고 이들의 出荷額 構成比도 54.3%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製造業은 高集中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77년과 비교하면  $CR_3 < 40\%$ 인 低集中産業이 59個에서 75個로 증가함으로써 競爭的 構造를 갖는 産業이 數的으로는 증가하였지만 出荷規模面에서는  $60\% \leq CR_3 < 80\%$ 인 中位集中型 寡占産業의 비중만이 증대하였고 여타 産業의 비중은 감퇴하였다. 이 추세는 1977~81年間 事業體數가 25.1%나 급증하면서 중래의 獨占的 大規模市場의 일부가 寡占化되는 한편 다수의 새로운 企業이 아직은 규모가 작으나 成長可能性이 큰 重化學分野에 진입한 결과로서 해석된다. 또한 비록 현재의 競爭的 市場의 규모는 작지만 그 絕對數는 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産業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製造業 全般의 競爭度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示唆點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製造業部門의 構造變

<表 8> 集中率 階層別 産業分布

$CR_3(\%)$	産業數(個, %)		出荷額構成比(%)	
	1977	1981	1977	1981
80~100	108 (32.6)	100 (30.2)	33.0	28.1
60~80	77 (23.3)	76 (22.7)	18.7	26.2
40~60	87 (26.3)	80 (24.5)	22.5	21.8
20~40	50 (15.1)	58 (17.5)	21.1	19.3
0~20	9 (2.7)	17 (5.1)	4.7	4.6
計	331(100.0)	331(100.0)	100.0	100.0

6) 1977년과 1981년에 적용된 細細分類産業數는 400個이나 出荷額이 集計되지 않은 産業 및 産業의 獨立의 性格이 미약한 其他未分類産業을 제외한 331個만을 대상으로 한다.

化過程에서 나타난 一般的 現象이며 個別産業 別로는 오히려 集中率이 증가한 경우도 많다. <附表 3>에서 330個 産業中 集中率 變化幅이  $\pm 5\%$  포인트 이내로서 安定的인 構造를 가진 것이 126개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며, 반대로  $\pm 20\%$  포인트 이상의 大幅的인 變化를 보인 것도 68개로 全體의 20.6%에 달한다. 全般的으로 集中率이 5%포인트 이상 變化한 243個 産業에서 集中率이 增加한 것은 115個, 減少한 것은 128個인데 이와 같이 비교적 대등한 兩分 傾向은 中分類 産業別로도 大差가 없으므로 결국 1977~81年間 産業成長에 따른 集中率變化 趨勢는 規則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原因은 大部分의 産業이 産業構造와 企業間 關係가 定型化되어 있지 않은 生成期 내지 變換期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産業別 集中率의 變化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平均集中率(average concentration ratio)을 검토하기로 한다. 平均으로는 單純平均과 出荷額을 加重值로 한 加重平均을 채택하며, 産業形態에 따른 차이의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對象産業을 生産財와 消費財産業으로 나누고 後者は 다시 耐久財와 非耐久財로 兩分하였다.

1981년의 平均集中率은 生産財産業이 消費財産業보다 높은 바<表 9>, 이는 消費財市場

<表 9> 平均出荷集中率(1981)

(단위: 産業數, %)

産業形態	細細分類 産業數	平均出荷集中率	
		單純平均	加重平均
生産財	208	64.7	63.9
消費財	123	60.7	57.9
(耐久財)	(72)	(58.7)	(48.1)
(非耐久財)	(51)	(63.7)	(73.6)
全産業	331	63.2	62.0

이 生産財市場보다 일반적으로 競爭이 심하다는 論點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消費財産業部門에 있어서 耐久財産業보다 非耐久財産業의 平均集中率이 높은 것은 非耐久性 消費財는 飲食料品처럼 주로 內需指向的이며 商品多樣化와 廣告集約度가 심하여 上位業體의 市場支配力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各企業 특히 上位企業의 相對的 規模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企業體數도 市場構造의 중요한 決定要因이지만 企業體數가 많더라도 最大企業이 압도적으로 市場을 점유한다면 나머지 企業들은 限界的 位置밖에 차지하지 못하여 市場은 사실상 獨占狀態와 같게 될 것이다. 따라서 企業體數는 上位企業과 餘他企業間的 相對的 規模를 결정한다는 間接적인 역할만을 하게 된다.

## V. 商品市場構造의 變化

### 1. 市場類型別 推移

市場構造의 實證分析에 있어서 市場構造의 分類基準은 特定市場의 總規模에 대한 市場內

市場構造의 구체적인 분류에 관하여는 獨占的 競爭(monopolistic competition)을 독립적인 市場類型으로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으며<sup>7)</sup> 또한 企業의 市場行動은 市場內의 企業體數와 무관하다는 논거도 있지만<sup>8)</sup> 本稿에서는 獨占的 競爭市場을 분리하지 않는 한편 構造的 側面에서 市場類型을 獨占, 複占, 寡占, 競爭의 네 가지로 分類한다. 複占

〈表 10〉 商品市場構造

(단위 : 商品數, 10億원)

市場類型	獨 占		複 占		寡 占		競 爭		計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年 度										
1970	442 (29.6)	110 (8.7)	279 (18.7)	204 (16.3)	495 (33.2)	439 (35.1)	276 (18.5)	498 (39.9)	1,492 (100.0)	1,252 (100.0)
1977	667 (31.6)	2,264 (16.3)	425 (20.1)	1,536 (11.0)	674 (32.0)	4,716 (33.9)	343 (16.3)	5,404 (38.8)	2,109 (100.0)	13,920 (100.0)
1981	521 (23.5)	4,878 (11.0)	211 (9.6)	2,070 (4.7)	1,085 (49.0)	22,500 (50.9)	397 (17.9)	14,735 (33.4)	2,214 (100.0)	44,183 (100.0)
市場規模(1981)										
50億 <sup>-</sup>	404 (29.8)	266 (17.0)	160 (11.8)	135 (8.7)	675 (49.9)	951 (61.0)	115 (8.5)	208 (13.3)	1,354 (100.0)	1,560 (100.0)
10~100億 <sup>-</sup>	36 (14.3)	260 (14.5)	16 (6.3)	112 (6.3)	132 (52.4)	946 (52.9)	68 (27.0)	469 (26.3)	252 (100.0)	1,787 (100.0)
100~300億 <sup>-</sup>	47 (14.6)	779 (13.6)	18 (5.6)	288 (5.0)	137 (42.5)	2,436 (42.5)	120 (37.3)	2,227 (38.9)	322 (100.0)	5,730 (100.0)
300億 <sup>+</sup>	34 (11.9)	3,574 (10.2)	17 (5.9)	1,534 (4.4)	141 (49.3)	18,167 (51.7)	94 (32.9)	11,831 (33.7)	286 (100.0)	35,106 (100.0)

註 : ( ) 안은 構成比임.

7) 이를 둘러싼 Stigler, Archibald, Friedman, Hadar 등의 論爭은 Rowley (1972)에 수록되어 있음.

8) 이 문제에 관한 McGee, Fama and Laffer, Archibald의 논의는 Brozen (1975) 참조.



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市場이 협소하여 두 개의 企業만을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전형적인 寡占과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市場構造의 분류에는 항상 恣意性이 介在하기 마련이지만 本稿에서는 出荷基準의 市場集中率과 上位企業間 規模隔差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한다.

獨占 :  $CR_1 \geq 80\%$ ,  $S_1/S_2 \geq 10.0$

複占 :  $CR_2 \geq 80\%$ ,  $S_1/S_2 < 5.0$ ,  $S_3 < 5\%$

寡占 :  $CR_3 \geq 60\%$  (獨占과 複占 제외)

競爭 :  $CR_3 < 60\%$ .

이 基準에 따라 1977年과 1981年의 市場構造를 분류한 결과가 <表 10>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요한 특징으로서 우선 현저한 寡占化現象을 지적할 수 있다. 즉 寡占商品市場은 商品數와 出荷에 있어서 다같이 17%포인트나 증가하여 81년에는 전체의 50% 수준에 달하여 있다. 반면 獨占과 複占의 경우는 그 비중뿐만 아니라 商品數 자체가 감소하였고 競爭의 경우는 商品數는 증가하였으나 出荷構成비는 약간 감소하였다. 이러한 推移는 앞서 조사한 產業集中率의 推移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1970年 이래의 商品市場構造의 변화를 보면 이 趨勢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1977年의 商品數는 1970년에 비하여 市場構造型別로 獨占 225個, 複占 146個, 寡占 179個, 競爭 67個가 증가하였는데, 1981년에는 1977년에 비하여 모두 105個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類型別로는 獨占과 複占이 각각 146個와 214個가 감소한 반면, 競爭은 54個, 寡占은 무려 411個나 증가하였다. 이는 經濟成長過程에서 다수의 새로운 商品이 출현하고 이 경우에 원초적으로

는 獨占 또는 複占이 형성되었다가 商品數增加勢의 둔화와 市場規模의 확대에 따라 既存市場이 寡占化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市場構造의 競爭도가 높을수록 商品數의 構成比보다는 出荷額의 構成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예컨대 1981年의 경우 獨占商品의 數와 出荷額構成비는 각각 23.5%와 11.0%인 반면, 競爭商品에 해당하는 構成비는 각각 17.9%와 33.4%가 된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競爭商品의 市場規模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추출한다면 1981년에 市場規模가 50億원 미만인 1,354個 商品 가운데 獨占 및 複占商品數는 41.7%이며 競爭商品數는 8.5%에 불과하지만, 거꾸로 市場規模가 300億원 이상인 286個 商品에 있어서는 獨占 및 複占商品數가 17.8%, 競爭商品數가 32.9%를 차지한다는 사실로 예시될 수 있다. 이것은 市場規模가 클수록 같은 조건이라면 競爭이 용이하다는 일반적인 理論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商品市場 競爭도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獨寡占 商品이 全體 商品數의 82.1%, 總出荷의 66.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에 있어서 獨寡占의 현상은 아직도 심각하며 다만 현재의 추세가 市場規模擴大에 따라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2. 100大 商品市場

1981年의 出荷額 100大 商品은 <附表 4>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商品의 總出荷는 25.3兆 원으로 製造業 總出荷의 57.9%에 달하고 있

다. 1977년에는 總商品數의 4.7%인 100大 商品의 出荷占有率이 55.9%이었으나 1981년에는 전체 商品數의 4.5%인 100大 商品이 出荷의 57.9%를 점유하므로 大規模商品의 비중이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0大 商品의 市場構造에 있어서(表11 참조) 獨占과 複占은 1977년의 27個에서 1981년의 14個로 半減한 반면, 寡占은 35個에서 52個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앞서 100大 商品 出荷額의 分布에서도 지적한 商品 市場 全體의 寡占化趨勢를 대변하고 있다.

100大 商品의 屬性別 構成을 보면 生産財가 1977년에는 59個이었으나 1981년에는 69個로 증가하여 이 期間中 重化學工業成長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兩年度의 100大 商品의 내역을 비교하면 이 期間中 製造業部門의 변화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9)</sup>.

1981년에 새로이 100大 商品에 포함된 27個中 所得水準向上 및 消費生活의 변모에 따라 市場規模가 확대된 食料品 3種을 제외하고는 産業用化學物 4種, 石油化學製品 2種, 第1次 鐵鋼製品 4種, 運輸裝備 4種, 電氣機械器具 2種 등 거의 전부를 重化學工業製品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1977년의 100大 商品中 탈락된 것에는 겸, 비스켓, 핸드백, 新聞用紙 등 市場規模나 市場成熟度가 비교적 安定된 것과 生絲, 假髮 등 輸出이 激減한 것, 그리고 스텔트, 圓型鐵筋, 角材, 벽타일 등 建築資材類가 있다.

〈表 11〉 100大 商品市場構造의 推移

	市 場 類 型			
	獨 占	複 占	寡 占	競 爭
1977				
商 品 數	9	18	35	38
(生産財)	(8)	(13)	(16)	(22)
出荷構成比(%)	14.9	10.6	37.5	37.9
1981				
商 品 數	6	8	52	34
(生産財)	(5)	(5)	(37)	(22)
出荷構成比(%)	14.0	4.4	53.9	32.7

### 3. 同質性 指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77~81년에 우리나라의 製造業部門의 市場構造는 商品間의 成長速度差異 및 新規企業의 進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同質性 指數(index of homogeneity)를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가 産業의 商品構成에 미친 영향을 보기로 한다. 이 指數는

〈表 12〉 同質性 指數의 産業別 分布

	0.0~0.2-	0.2~0.4-	0.4~0.6-	0.6~0.8-	0.8~1.0-	1.0+
1977						
産 業 數	3	54	77	50	71	57
(出荷構成比)	(6.2)	(22.5)	(25.0)	(16.0)	(24.6)	(5.6)
1981						
産 業 數	5	51	36	57	59	55
(出荷構成比)	(3.8)	(25.9)	(31.3)	(15.9)	(18.3)	(4.8)

9) 1977年 100大 商品의 內譯은 李奎億(1981) 참조.

細細分類產業內 最大商品 出荷額  
商品出荷額の 細細分類產業別 合計

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이指數는 한 産業의 商品分化度を 나타내 주며 指數値가 높을수록 그 産業은 同質性이 높아 單一商品으로 대표하여도 무방하게 된다.

1977年과 1981年의 400개 細細分類産業中 産業의 正체가 모호한 소위 「其他 未分類産業」과 兩年度의 比較가 불가능한 産業을 제외한 312개 産業의 同質性指數는 <表 12>와 같은 分布를 갖고 있다. 同質性指數値가 0.8 이상인 産業의 비중은 1977年에 數的으로는 41.0%, 出荷額으로는 30.2%이었으나 1980年에는 각각 36.2%와 23.1%로 저하하였다. 따라서 調査對象 期間中 전체적으로 産業의 商品同質性이 저하하여 1981年에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기간 중 商品數는 5.0%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는 商品間 成長速度의 차이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中分類産業別로 同質性指數의 分布를 보면 (附表 5), 化學製品類, 第1次 金屬類, 機械·裝備類, 纖維·衣服類 産業에 있어서 同質性指數가 0.4 미만인 産業의 比重 및 數가 클 뿐만 아니라 同質性指數가 20%포인트 이상 감소한 産業의 比重도 높다. 그러나 同質性指數의 變化는 産業에 내재하는 商品構造의 多樣性이나 일반적 성격으로써 單線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즉 ±20%포인트 이상 同質性指數値가 변화한 産業에 있어서 감소한 産業數와 증가한 産業數가 각각 38個와 30個로 양자간

10) 産業基準調査方法이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鑛工業統計調査에서 채택되는 것은 産業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給與額, 附加價值, 資産 등의 크기는 최소한 事業體를 基本單位로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각 事業體를 어느 한 産業으로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中分類産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産業의 同質性에 관한 분석은 各産業別 商品構造의 微視的인 研究를 통하여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 Ⅵ. 製造業部門 産業構造의 特性

### 1. 産業分類方法의 特徵

本節에서는 『鑛工業 統計調査 報告書』에서 채택하고 있는 産業分類方法을 개관하여 이 報告書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바로 그러한 分類·集計方式에 의한 결과를 통하여 製造業의 特性을 발견하고자 한다.

鑛工業統計는 원칙적으로 事業體(工場)單位로 조사되며 細細分類産業과 商品의 두 가지 基準으로 작성된다. 産業基準으로 작성할 때에는 한 事業體가 생산하는 모든 商品의 價額을 그 事業體의 生産額比重이 가장 큰 産業에 귀속시키며, 이 産業을 當該事業體의 主産業이라 한다. 예를 들어, 한 事業體가 아이스크림(31123100)과 사이다(31340111)를 각각 10億원과 5億원 생산한다면 總生産額 15億원이 모두 이 事業體의 主産業인 아이스크림 製造業(31123)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商品基準으로는 물론 10億원과 5億원이 각각 該當商品總生産額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特定産業의 精確한 市場狀況을 알기 위해서는 各産業에 속한 構成 商品의 合計額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sup>10)</sup>.

〈表 13〉 産業出荷와 商品出荷産業集計의 差異 (1981)

	0~0.1-	0.1~0.3-	0.3~0.5-	0.5+
産業數 (%)	174 (46.6)	111 (29.8)	31 (8.3)	57 (15.3)

이와 같은 集計上의 차이를 일차적으로 보기 위하여 主産業基準의 出荷額을 A, 商品出荷의 産業集計를 B로 할 때,  $|A - B|/B$ 를 差異度라 정의하고, 이를 未集計된 産業이 제외된 303個 細細分類産業에 걸쳐 산출한 결과는 〈表 13〉과 같은데 전체 細細分類産業의 23.6%인 88個 産業은 差異度가 0.3 이상이다.

그러나 두 가지 集計上의 차이는 이것보다도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위의 差異度는 두 가지 集計値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差異度가 적더라도 반드시 産業基準統計가 실제의 市場狀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기加工 및 貯藏業(31113)은 베이콘·햄 및 기타 패지고기(31113111), 소시지(31113113), 고기 통조림(31113121) 등 9개 品目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産業出荷額과 商品出荷産業集計額은 각각

875億원과 839億원으로 差異度는 0.042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主産業이 고기加工 및 貯藏業인 企業의 上記한 商品의 出荷額은 231億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44億원은 他産業의 商品을 出荷한 것이며 반면 이 産業이 主産業이 아닌 企業에서 上記商品을 出荷한 金額은 608億원에 달하므로 우연의 일치로 差異度가 낮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 2. 特化도와 包括度

위에서 지적한 문제는 이미 함축한 바와 같이 多生産物企業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産業分類上의 産業構造特性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特化도와 包括度を 이용하기로 한다.

特化度(primary product specialization ratio)는

$$\frac{\text{主産業이 X인 企業들의 X 出荷額}}{\text{主産業이 X인 企業들의 總出荷額}}$$

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分母는 本節 1項의 産業出荷에 해당한다. 따라서 特化도가 높을수

〈表 14〉 特化도와 包括度の 産業別 分布 (1981)

中 分 類 産 業	細細分類 産業數	特 化 度			包 括 度		
		0~0.5-	0.5~0.7-	0.7+	0~0.5-	0.5~0.7-	0.7+
飲 食 料 品 및 담 배	44	19	16	9	22	15	7
纖 維·衣 服 및 가 죽	57	11	27	19	13	28	16
製 材·木 材 및 家 具	20	5	8	7	6	6	8
종이·종이製品 및 印刷·出版	23	3	6	14	4	11	11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56	19	22	15	23	24	7
非 金 屬 鑛 物	25	7	7	11	6	7	10
第 1 次 金 屬	13	2	7	4	5	7	1
金屬製品·機械 및 裝 備	114	40	37	47	43	43	28
其 他	21	4	3	14	5	5	11
計	373	110	133	130	124	146	103

록, 特定産業의 企業들이 主産業의 生産에 상대적으로 많이 치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家庭用 纖維製品 製造業(32122)의 特化도는 0.813이므로 이 産業을 主産業으로 하는 企業들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出荷의 81.3%를 家庭用 纖維製品이 차지하고 나머지 18.7%는 他産業製品으로 出荷하는 것이다.

特化도의 産業別 分布를 보면 (表 14), 飮食料品과 化學製品類 産業의 特化도가 대체로 낮은데, 이는 前者의 경우에 需要에 적응하는 商品多様化 程度가 높으며 後者에 있어서는 生産方式의 특수성에 의한 結合生産物(joint product)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特化도가 높은 産業은 종이·印刷類 産業과 金屬·機械·裝備類 産業으로서 이러한 産業에서는 商品別 生産의 專門化가 불가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製造業 전체적으로 特化도가 0.7 이상인 産業은 34.9%에 불과한 반면, 0.5 미만인 産業이 29.5%에 달하여 1977년에 비하여 企業의 生産物 多邊化(diversification)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對象産業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1977년의 特化도 分布를 본다면 0.7 이상이 90.2%를 차지하고 0.5 미만은 불과 2.1%로서 대부분의 産業이 特化되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包括度(coverage ratio)는

$$\frac{\text{主産業이 X인 企業의 X出荷額}}{\text{모든 企業의 X出荷額}}$$

이므로 特化도와 分子는 같지만 分母가 本節 1項의 商品出荷産業集計에 해당한다. 包括도는 特定産業에 속하는 商品이 주로 企業의 主産品으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副産品으로 구성되는지를 나타내주는 指數이다. 그러므로 包括도

가 낮을수록 해당 産業製品을 副産物로서 생산하는 企業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菓子製造業(31172)의 包括도는 32.8%인데 이는 主産業이 菓子製造業인 企業에서 菓子總出荷의 32.8%를 점유하고 나머지 67.2%는 主産業이 菓子製造業이 아닌 企業에서 出荷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包括도도 特化도와 유사하게 企業의 商品多邊化가 진전될수록 主産業 以外の 市場으로 진출하게 되므로 낮아진다. 실제로 飮食料, 化學製品類 産業처럼 特化도가 낮은 産業은 包括도도 낮으며 종이·印刷·出版類 産業, 非金屬礦物産業 및 其他類 産業의 包括도는 높다(表 14). 包括도의 推移도 特化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7년에 包括도가 0.7 이상인 産業이 68.7%였지만 1981년에는 27.6%로 감소하였고 거꾸로 0.5미만인 産業은 같은 기간 중 14.1%에서 33.2%로 증가하였다.

特化도와 包括도를 從橫으로 결부시키면 各産業의 特性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① 特化도와 包括도가 모두 낮은 産業: 該當 産業內, 企業의 多邊化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産業에 속하는 商品의 대부분이 他産業에 속한 企業에 의하여 出荷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市場狀況을 분석하는 데 있어 産業統計上의 數値는 의미가 없다.

② 特化도는 높지만 包括도가 낮은 産業: 當該産業을 主産業으로 하는 企業은 多邊化도가 낮아 主産業의 비중이 높지만 産業의 성격상 다른 産業의 副産物的인 속성을 갖고 있어 다른 産業內 企業에 의한 比重이 크다. 이런 産業의 市場構造를 분석하려면 連關産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表 15〉 特化도와 包括度基準의 産業類型 例(1981)

産業類型		産 業 名 (特化度, 包括度)
特化度	包括度	
低	低	아이스크림(0.08, 0.10), 食物油脂(0.09, 0.08), 펄프(0.02, 0.02), 合成 고무(0.18, 0.19), 鐵板金屬製品(0.28, 0.27), 렌즈(0.19, 0.19)
高	低	麻紡績(0.91, 0.19), 타이어코드 및 織物(0.96, 0.04), 內裝家具(0.99, 0.32), 內燃機關(1.00, 0.08), 電氣供給計器(0.93, 0.35)
低	高	編織外衣(0.61, 0.81), 新聞發行(0.57, 0.78), 農業用機械 및 裝備(0.43, 0.91)
高	高	海産物加工貯藏(0.84, 0.87), 燒酒(0.77, 0.78), 韓紙(0.91, 0.81), 잉크(0.98, 0.80), 電子管 및 其他電子部品(0.85, 0.85)

③ 特化도는 낮지만 包括도가 높은 産業: 이 産業을 主産業으로 하는 企業의 多邊화가 확대되어 産業內 企業의 出荷額에서 이 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他産業內 企業에 의한 市場進入도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産業에서는 競爭이 該當産業內 多生産物企業間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該當企業間的 總體的인 市場力關係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④ 特化도와 包括도가 모두 높은 産業: 이러한 産業에서는 대부분의 企業에 있어서 多邊化도가 낮으며 他産業內 企業에 의한 市場進入도 적으므로 독립적인 産業의 범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分類에 해당하는 1981년의 典型的인 産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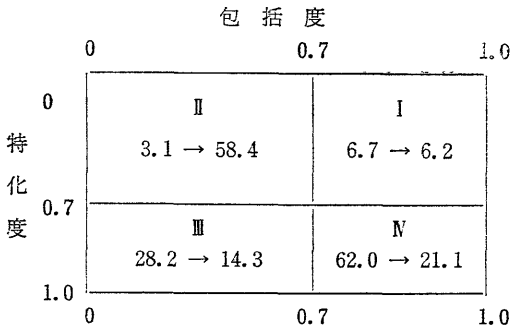
다음으로 1977~81年間 特化도와 包括도로 본 産業分布의 推移는 〈表 16〉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우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特化도와 包括도가 모두 높아 統計上의 産業現況이 실상을 비교적 잘 나타내주는 IV群의 比重이 현저히 감소하여 1981년에는 전체 産業數의 21.1%에 불과한 반면, 特化도와 包括도가 모두 낮은 I群의 비중은 현저히 증대하여 58.4%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1981년의 産業構造 및 市場狀況의 분석을 위하여 鑛工業統計의 産業統計를 그대로 사용하던 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3. 多生産物企業과 多工場企業

이상에서 검출한 문제는 누차 지적하였듯이

〈表 16〉 特化도와 包括度の 分布

(단위: %)  
(1977年→1981年)



〈表 17〉 多生産物企業의 現況(1981)

(단위: 10億원)

商品數	1個	2個	3個	4個	5個+
企業數	19,598	5,079	1,868	692	765
(%)	(70.0)	(18.1)	(6.7)	(2.5)	(2.7)
出荷額	8,938	5,314	4,238	4,072	21,479
(%)	(20.3)	(12.1)	(9.6)	(9.2)	(48.8)

企業多邊化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産業에 관한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特定産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企業多邊化를 企業의 측면에서 보기 위하여 多生産物企業(multiproduct firm)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가 <表17>에 요약되어 있다. 이 表에 의하면 單一生産物企業은 數的으로는 全體 企業數의 70.0%를 차지하지만 出荷額의 비중은 20.3%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單一生産物企業은 小企業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多工場企業(multiplant firm)의 현황을 보면(表 18), 多工場企業은 전체의 2.3%에 불과하지만 出荷比重은 이보다 훨씬 높은 36.0%에 달하고 있으므로 多工場企業은 주로 大企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製造業部門은 多生産物 및 多工場企業의 비중이 크고 商品多邊化가 빠르게 진행되어온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産業別 性格의 변화를 감안하기 위하여 産業分類體系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技術的 側面 이외에도, 單一生産物 單一工場企業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理論이 커다란 현실적 제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이것은 多邊化와 産業 내지 企業成長의 관계를 좀더 세밀히 연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産業開發方向을 조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Ⅷ. 結 言

本稿에서는 1977~81年間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의 市場構造 推移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였는데 이로부터 推論할 수 있는 주요한 構造의 特性和 이에 따른 政策的 示唆點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期間 중 製造業部門은 특히 급속한 重化學工業化에 힘입어 여타 部門보다 훨씬 빠르게 成長함으로써 우리나라 經濟成長의 母體가 되었는데, 이는 市場規模가 큰 商品이 대부분 重化學製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立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産業構造의 변모는 주로 大企業에 의하여 推進됨으로써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相對的 規模 및 市場成果의 隔差가 확대되었다.

둘째, 이 과정에서 소수 大企業에 의한 一般集中이 심화되어 현재 매우 높은 水準에 달하여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大企業이 갖는 規模의 經濟性 의에도 多工場企業의 증가와 大企業의 市場力 増大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上位 大企業이 企業集團의 系列 企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一般集中의 高度化는 經濟力集中의 基底를 이루는 것이다.

셋째, 産業別 集中의 推移를 보면 獨占型 高位集中産業의 比重이 減少하고 相對的으로 寡占型 低位集中産業의 比重이 증대하였다. 또한 競爭型 産業은 그 比重에 큰 變化를 보이

<表 18> 多工場企業의 現況(1981)

(단위 : 10億원)

工場數	1 個	2 個	3 個	4 個	5 個 <sup>+</sup>
企業數 (%)	31,867 (97.7)	509 (1.6)	112 (0.3)	27 (0.1)	101 (0.3)
出荷額 (%)	29,321 (64.0)	7,215 (15.7)	2,659 (5.8)	1,416 (3.1)	5,220 (11.4)

지는 않지만 産業數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市場規模가 클수록 競爭度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것은 商品市場構造의 類型別 推移에서도 볼 수 있는데 비록 현재의 市場構造를 대체적으로 寡占型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全體經濟規模의 擴大에 따라 全般的으로 競爭度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네째, 産業成長率과 集中率變化 間에는 一定한 關係를 發見할 수 없으며 동시에 個別産業의 商品同質性도 일반적으로는 저하하였지만 특별한 規則性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製造業이 根本的인 構造再編過程에 있으므로 市場構造와 産業內 商品構成이 安定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므로 市場構造가 어느 정도 定型化되지 않은 현재의 與件에서 競爭政策을 위시한 産業政策이 갖는 重要性이 새삼 부각된다.

다섯째, 이와 같은 産業構造 내지 市場構造 變化의 이면에는 多生物企業 및 多工場企業의

확장에 의한 市場多邊化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製造業의 成長과 市場多邊化는 매우 밀접한 因果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이상 요약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企業多邊化의 확대에 따라 企業間 競爭이 단일 商品市場에만 局限되지 않기 때문에 競爭의 效果 내지 企業行動의 市場構造에 대한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단일 商品市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企業의 總體的 市場力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多邊化를 통한 企業成長의 動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多生産物·多工場 複合企業의 여러 市場에 걸친 市場力 濫用과 複合企業에 의한 經濟力集中의 加速化를 적절히 規制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단독 中小企業의 成長을 유도하는 것이 금후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政策의 주요 課題로 대두된다.

##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1年.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 規制』, 韓國開發研究院, 1977年.

\_\_\_\_\_, 徐鎮教, 『韓國製造業의 産業集中分析』, 1981年.

Aaronovitch, S. and Sawyer, M.C., *Big Business*, Holmes & Meier Publishers, New York, 1975.

Brozen, Yale, ed., *The Competitive Economy: Selected Readings*, General Learning Press, Morristown, N. J., 1975.

Gold, Bela, "Changing Perspectives on Size,

Scale, and Returns: An Interpretive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81.

Harman, H., *Modern Factor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Horst, P., *Factor Analysis of Data Matrice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ew York, 1965.

Prais, S.J., *The Evolution of Giant Firms in Britain*,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Rowley, Charles K., ed., *Readings in Indu-*



*ustrial Economics, Vol. 1, The Macmillan  
Press, New York, 1972.*  
Singer, E.M., *Antitrust Economics: Selected*

*Legal Cases and Economic Models, Pre  
ntice-Hall, Englewood-Cliffs, N. J., 1968.*

〈附表 1〉 産業別 成長率(1977~81)

産業 Cord	産 業 名	事業體數		額 備		出 荷		附 加 價 值		
		81(個)	增加率	81(千名)	增加率	81 (10億圓)	增加率	81 (10億圓)	增加率	增加率 (實質) <sup>D</sup>
31	飲 食 料 品 및 담 배	4,621	2.9	172	0.4	6,067	25.9	2,433	22.8	5.2
32	織 維, 衣 服 및 가 축	8,468	3.1	654	-0.2	8,041	26.2	3,051	29.2	12.2
33	나 무 및 나 무 製 品	2,294	1.4	63	-2.6	953	17.9	231	13.8	-3.0
34	종 이 및 종 이 製 品, 印 刷 및 出 版	2,587	6.5	91	1.7	1,772	32.4	641	28.9	12.8
35	化 學 物 質, 石 油, 石 炭, 고 무, 플 라 스틱	3,231	7.9	262	2.4	12,453	38.4	3,079	31.6	4.4
36	非 金 屬 鑛 物 製 品	2,626	10.8	92	4.5	1,756	30.0	767	27.4	5.6
37	第 1 次 金 屬	961	9.7	88	5.9	4,451	40.2	1,296	41.2	23.9
38	組 立 金 屬 製 品 · 機 械 및 裝 備	7,433	9.6	544	3.8	9,593	32.1	3,601	28.7	15.3
39	其 他	1,210	5.4	78	-1.0	746	32.5	314	31.5	14.2
	全 製 造 業	33,431	5.7	2,044	1.6	45,831	31.8	15,413	28.8	9.8

註: 1) 名目增加率에서 製造業 中分類別 GNP 디플레이터를 뺀 숫자임.

〈附表 2〉 出荷 및 雇傭 100大 企業의 産業別 分布(1981)

(단위: 個)

小 分 類 産 業 名	出 荷 基 準			雇 傭 基 準		
	1~50位	51~100位	計	1~50位	51~100位	計
食 料 品	6	5	11	3	4	7
飲 料 品	0	4	4	0	0	0
담 배	1	0	1	1	0	1
織 維	7	7	14	12	10	22
衣 服	1	4	5	4	6	10
가 축 및 毛 皮	0	0	0	0	1	1
製 材 및 木 製 品	0	0	0	0	2	2
産 業 用 化 學 物 質	5	10	15	2	1	3
其 他 化 學 製 品	0	1	1	0	1	1
石 油 精 製	4	1	5	0	0	0
其 他 石 油 및 石 炭 製 品	0	1	1	0	0	0
고 무 製 品	3	2	5	5	3	8
其 他 플 라 스틱 製 品	0	1	1	2	0	2
유 리 및 유 리 製 品	0	0	0	0	1	1
其 他 非 金 屬 鑛 物 製 品	2	1	3	1	0	1
第 1 次 鐵 鋼	8	3	11	3	1	4
第 1 次 非 鐵 金 屬	0	2	2	1	0	1
組 立 金 屬	0	0	0	0	3	3
機 械	2	1	3	2	0	2
電 氣 機 械	4	3	7	5	11	16
運 輸 裝 備	7	4	11	9	3	12
其 他	0	0	0	0	3	3

〈附表 3〉 産業別 出荷集中率 變化(1977~81)

中分類 産業名	CR <sub>3</sub> 低下幅 (%포인트)				CR <sub>3</sub> 上昇幅 (%포인트)			
	-20-	-20~-5-	-5~0-	計	0~5-	5~20-	20+	計
飲食料品 및 담배	3	6	4	13	13	8	5	26
纖維·衣服 및 가죽	7	13	8	28	10	8	3	21
製材·木材 및 家具	3	5	3	11	1	2	2	5
종이·종이製品 및 印刷·出版	1	8	2	11	2	3	3	8
化學·석유·고무·플라스틱	5	10	12	27	10	9	6	25
非金屬 鑛物	2	4	5	11	9	4	0	13
第 1 次 金屬	0	2	0	2	2	6	1	9
金屬製品·機械 및 裝備	16	21	22	59	17	20	6	43
其 他	3	6	4	13	2	2	2	5
計	40	75	60	175	66	62	28	156

〈附表 4〉 100大 商品 市場構造(1981)

(단위: 10억원)

市場類型	出荷額(%)	商 品 名
獨 占	2,278 (9.0)	필터담배, 熱延廣幅帶鋼, 스텐레스 鋼板*, 其他 特殊形態 貨物運搬船*, 텔레프탈산*, 슬라브-普通鋼*(6個)
複 占	1,10 (4.4)	제트油, 精鍊銅, P.V.C., 麥酒, 라면, 수퍼플리에스터 纖維*, 글루타민산 소다, 陰極線 텔레비전 映像管*(8個)
寡 占	13,611 (53.9)	방카C油, 輕油, 普通시멘트, 一般貨物船, 나프타, 電氣熔接鋼管, 厚板, 普通鋼*, 精糖, 天然色 T.V.*, 自動車타이어, 異型鐵筋, 複合肥料, 金屬構造物 및 그 部品, 混紡合纖維物, 燈油, 모터 가솔린, 乘用車, 黑白 T.V. 冷延薄板, 通信線 및 케이블, 尿素, 에틸렌*, 特殊車*, 油槽船*, 電力線 및 케이블, 로드레일 및 類似콘크레터*, 既成服, 에틸렌의 重合製品*, 潤滑油, 抗生劑, 小型貨物自動車, 부탄*, 再生纖維紡績絲*, 自動電話交換機, 普通鋼一線材*, 플라스틱 신발, 綿內衣, 밀가루, 폴리프로피렌, 시멘트크링커*, 粉乳, 重油, 大型버스, 家庭用冷藏庫, 再乾燥인담배*, 프로판*, 스내클*, 耕耘機, 손목時計*, 트랜지스터, 아이스크림, 마닐라板紙(52個)
競 爭	8,276 (32.7)	合纖維物, 合纖紡績絲, 煉炭, 配合飼料, 運動靴, 純綿絲, 合板, 와이셔츠, 밀가루, 普通外衣, 純綿織物*, 處理牛乳*, 燒酒, 소가죽, 錄音器, 레미콘, 골판지 상자, 男子用外衣, 濁酒, 純本綿織物, I.C. 回路, 書籍, 酒精, 플라스틱 필름*, 日刊新聞, 混紡合纖紡績絲*, 模造紙, 異型 및 類似製品, 冷凍물고기, 乳酸菌發酵乳*, 브라우스 및 셔츠, 알미늄샷시*, 男子用 가죽衣服, 골판지 原紙(34個)

註: \*의 商品은 1981년에 새로이 100大 商品에 포함될 것임.

〈附表 5〉 同質性 指數의 中分類 産業別 分布

産 業 名	同質性 指數(1981)							同質性指數變化幅 (81~71年)	
	0.0~ 0.2-	0.2~ 0.4-	0.4~ 0.6-	0.6~ 0.8-	0.8~ 1.0-	1.0	-20%+ 포인트	+20%+ 포인트	
飲食料品 및 담배		6	7	6	12	9	3	4	
纖維, 衣服 및 가죽		7	13	17	7	7	7	3	
나무 및 나무製品		1	6	2	3	4	2	1	
종이 및 종이製品, 印刷 및 出版		1	6	4	6	5	1	2	
化學物과 石油, 石炭, 고무, 플라스틱	5	7	12	6	11	9	7	5	
非金屬 鑛物製品		3	10	4	5	6	3	3	
第 1 次金屬		6	5		1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		20	27	16	17	10	13	10	
其 他		2	2	5	5	5	2	2	